

만남

06

2021

통권 56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전 세대가 함께 드린 가족주일 예배

5월 9일 가족주일을 맞아 2~4부 예배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하는 전 세대 예배로 드렸다. 2부는 사랑부와 중·고등부 가정, 3부는 영·유아와 유치부 가정, 4부는 아동부 가정을 중심으로 참석했으며, 본당 1층 중앙에 가족석을 운영하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인도자의 성경 봉독이 아닌 ‘바이블 필름’을 통해 전달됐으며, 김운성 위임목사가 ‘우연에서 마침으로’ 제목의 가족주일 메시지를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한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가 다윗으로 연결되며 한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되었다”면서 ‘우연’에서 ‘마침’에 이르는 하나님 구원역사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이날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퀴즈 여행 ‘우연에서 맞힘으로’가 진행되었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나는 네 방패요 김운성

특집 **04** 북한인권 문제와 기독인의 역할 제성호

북한선교 **07** 나는 ‘자유인 연어’입니다 박원희

10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통일 12,000km 박상언

12 2021년 상반기 복음통일학교를 마치며 최인용

13 복음통일을 향한 20대의 염원 대학부

영락칼럼 **14** 아직 끝나지 않은 6·25 한국전쟁 이재규

다음세대 **18** 은혜 아니었으면 회사 못 다녔을 것 박세환

20 주일설교 말씀을 그림으로 나눠요 이정현·류화정

22 넌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단다 이영미

특별기획 **25** 영락의 2030이 생각하는 ‘가정과 신앙’ 청년기획팀

땅끝까지 이르러 **32** 군선교 현장의 변화와 희망 유경수

35 고통받는 M국,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38 하나님의 훈련법 윤선종

영락의 울타리 **40** 불타버린 교회에 부어주신 큰 사랑 백현준

42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상담부 현정임

44 월경통, 이제는 참지 마세요! 김종석

야곱의 우물가 **46** “누나 때문이야. 책임져!” 남윤자

48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김옥희

문화광장 **50** 전능왕 오셔서 박신화

52 프로젝트 솔지: 한국전쟁 용사들을 찾아 유혜정

55 파인애플 스토리 남정열

56 다윗을 연단시킨 이스라엘 광야 김정혁

58 골짜기의 백합화 - 정결의 샘 서동희

교회소식 **59** 교육주일 온라인 교사 위로행사 외

63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64 6월 목회력

표지설명



백마고지역은 경원선의 철도 중단점이자 휴전선 이남에서 최북단 철도역이다.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백마고지 전투를 기념해 역이름으로 명명했다.

제공 김한기 기자

나는 네 방패요

김운성 위임목사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세기 15:1)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가정에 심방을 가셨는데, 안방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보셨습니다. 안방 벽 한가운데에 매우 낡고 구멍이 승승 난 배낭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안방에 걸어 두기엔 어울리지 않는, 버려야 할 매우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소중하게 걸어 두셨습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성도의 대답은 감동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6·25전쟁 중에 월남한 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주검을 넘어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총알이 날고, 파편이 튕는 상황을 헤쳐 나오는 어려움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잠시 후 정신을 차려 보니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총알에 맞았는데, 죽지 않은 이유는 배

낭 때문이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는 배낭에 승승 뚫린 구멍은 다름 아닌 총알 자국이었습니다. “저 배낭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은 배낭이 저를 살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배낭으로 막아 저를 살리신 것이지요. 저 배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방패였던 셈이지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배낭을 걸어 두고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이라 부르게 하셨지요)에게 “나는 네 방패요”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단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흥년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으로 인해 마음고생도 했고, 소돔성 일원에서 전쟁도 했습니다. 오랫

동안 자식이 없었던 그는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 이들을 내보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후에 백 세가 되어서야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간신히 얻었습니다. 그가 주로 살았던 브엘세바는 풍경 좋고 기후 좋은 곳이 아니라, 너무도 메마르고 뜨거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약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네 방패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단한 생애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마음 아픈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애굽 왕 시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의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고, 왕이 성전에 오갈 때 경호 책임자들은 놋 방패를 들고 왕을 호위했습니다. 금 방패는 빼앗기고, 놋 방패로 대신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쉽습니다.

평생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살아간 이들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무수한 전쟁을 치렀고, 사울에게 쫓겨야 했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의 반란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준 분은 여

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이심을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6월이 될 때마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위협에 대해 더 많이 염려합니다. 언제 해소될지 모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무력을 증강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몰두하는 주변 강국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수록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 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염려가 정말 큽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안한 출타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경제 현안들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이 와중에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마음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6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믿고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6·25의 절망적 상황에서 극적으로 우리를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정도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금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막아주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견고한 나라,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나라, 복음의 정신이 사회에서 구현되는 나라, 세계 선교에 견인차 되는 나라, 복음 통일의 기쁨을 만끽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만날**

북한인권 문제와 기독인의 역할

1.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오늘날 북한인권 실상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2005년 12월 아래 작년까지 매년 유엔 총회 본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어 온 것이 이런 사실을 잘 말해준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가지도 못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당한 채 강제로 끌려가며,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기도 한다. 주민들은 항상 이중삼중의 감시체계에 놓여 있다.

일반 주민은 해외여행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식량 부족과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을 위한 탈출마저 ‘조국반역행위’ 내지 ‘비법월경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곧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중형에 처한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감히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 세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의적 구금, 공개처형, 탈북민 강제송환, 양심·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등은 금일의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적 징표들이다.

2. 유엔의 입장과 대응

유엔은 북한인권 상황을 ‘인류보편 가치(universal value)’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즉, 국경·인종·체제·이념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가치요 권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태도는 유엔 현장·세계 인권선언·자유권규약(국제인권 B규약)의 요청에 부합한다. 나아가 유엔은 작금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COI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유엔의 이 같은 접근에 대해 인권의 부당한 ‘정치화’이자 불법적인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며, 단호히 배척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유엔체제 하에서 인권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간주한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연맹 시대에나 통했을 시대착오적 논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때 분배 모니터링 통해 투명성 확보하고 군사적 전용 방지해야

이런 입장에서 총회는 16년째 연속해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여 강력한 우려 표명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체제 내에서 인권전담기구로 활동하는 인권이사회(인권위원회의 후신)는 2014년 3월에 열린 제25차 정기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핵심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절차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총회는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해 왔고, 안보리는 총회 권고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여에 걸쳐 이 사안을 심의하기도 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위 인권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핵심가해자의 책임규명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015년 6월 「유엔서울인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책임규명과 관련해 2016년 9월, 2명의 독립전문가를 임명한 바 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친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지난 3월 10일 제46차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한편, 보고서 말미에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비롯한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시행 등 8가지 사항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3. 기독인의 균형 잡힌 대북 자세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지만, 인권 거론은 북한을 자극할 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고가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 하에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모두 인도적 지원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량권·피복권(被服權)·건강권·의료권 등 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때, 곧 인도적 ‘결과’ 도출 내지 ‘목적’ 달성을 이룩할 때만이 인도적으로 지원된다. 이 같은 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거나 북한 지배계층에만 제공되는 경우, 군사적 지원이나 체제안정으로 지원될 뿐이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분배 모니터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군사적 전용 방지가 요구된다.

인권개선 노력은 북한 주민들이 타율적으로 상실한 ‘인간성 회복’ 지원 활동으로서 ‘인도주의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런 노력을 협오할지 모르나 북한 주민이 반대할 리 만무하다. 결국 인권증진 역시 인도적 지원처럼 북한 주민을 시야에 넣는 ‘민족자애적’ 행동인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원칙 있는 인도지원과 인권개선을 ‘통합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태도’이자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 개혁·개방을 하는 나



라치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민생을 우선하여 돌보는 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한편 중·대만 사례에서 보듯 교류협력은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며, 친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처럼 인권이 숨 쉬지 않는 평화는 지속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거나 교류협력을 위한다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희생해선 안 된다. 기독인들이 올바른 대북관·인권관·평화관·통일관 등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4.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지금 북한 주민은 3대 부자세습체제 아래서 노

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애굽 왕 바로의 압제 아래 종살이하며 탄압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다. 이들을 구출해 해방의 기쁨을 돌려주는 것이 이 시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주체사상·수령 독재·부자세습체제에 있다. 즉 반기독교 사상·개인 우상·인본주의 등 반인권 정치시스템이다. 이 점에서 북한인권은 ‘영적 문제’로 치환된다. 그렇기에 기독인은 북한동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품고 무엇보다 수령독재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또한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동포애)’의 표현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인권 기도운동·북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세미나 개최 및 캠페인 전개·탈북민 정착지원과 자매결연·순수 인도주의 지원·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알 권리) 개선지원·북한인권단체 및 현장 활동가 후원·국내외 한인교회 네트워킹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은 ‘거론’할 때 ‘개선’이 있지만, 침묵하면 진전이 없는 법이다. 또한 관심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이 같은 명제는 북한 인권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간 한국 교회는 극소수 기독교 NGO를 제외하면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이제는 북한 인권의 무관심에서 깨어나 빛을 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만남**



제성호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충신교회 장로

나는 ‘자유인 연어’입니다



박원희_자유인

할렐루야.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1999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입니다. 낮선 대한민국과 서울의 각박한 인심에 소스라치며 무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던 그 시절,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도 잠시, 쓰나 미처럼 밀어닥치는 현실을 오롯이 감당하면서 너무 힘든 20대를 보냈습니다.

자정까지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과 씨름하고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기 위해 강북으로 강남으로 아르바이트하러 뛰어다녔습니다. 부족한 영어를 배우러 첫 새벽 지하철을 탔던 시절에도 주일이

면 꼬박꼬박 갔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교회에 가기 위해 한 시간 동안 서울을 가로지르는 지하철을 타고, 정신없이 콤아떨어져 가끔은 읊지로 입구역을 지나치면서도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찾았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오신 할아버지 세대가 서러운 마음들을 모아 세운 교회, 반세기 넘게 한자리에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영락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근엄한 내 아버지의 모습 같은 예배당의 실루엣이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북한선교센터 전체 성탄절 예배 후 친교모임



2004년 추석 북한산 등산

저희 탈북자들은 태어나서 자란 조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 제 발로 떠나온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두고 온 고향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사선을 넘는 탈북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와 구원의 기적 같은 극한의 심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북한을 버리고 남한만 선택하셨나? 왜 2,500만 백성을 종으로 부리는 김 씨네가 대를 이어 잘 사는 것을 보고만 계신 걸까? 이런 마음을 품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불편한 마음과 방황을 사랑과 기도로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북한선교센터(현 북한선교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되어, 초창기에는 달랑 여섯 명뿐이던 탈북민들을 위해 열 명도 넘는 교사님들로 꾸려진 북한선교센터는 50주년기념관 7층에서 항상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과 여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학생 수보다 더 많았던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북한선교센터에서 상처투성이인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공부는 왜 그렇게 지루했던지, 예배가 시작되면 왜 그렇게 즐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교회로 향했던 모든 발걸음과 시간은 바로 내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이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은 북한선교센터 선생님들을 통해 저에게 신앙의 자양분으로 흘러왔습니다.

영락교회 울타리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정착 초기의 성장통을 잘 이겨낸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열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고, 완벽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은

혜임을 이제는 아는 나이가 되고 보니, 값없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집사 교육도 받았으며 탈북민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하는 작은 봉사도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내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선교센터의 선생님들과 영락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 헌신 속에서 북한선교센터는 이제 설립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선교센터는 탈북민 예배와 신앙교육, 선교사양성과 미래의 통일 인재를 키우는 <뉴코리아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등 많은 외연적 확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복음통일 사역의 장자교회로 영락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계획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처럼 영락교회 북한선교센터에서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신앙의 뿌리를 내렸던 많은 탈북 동포들은 이제는 각자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살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없었더라면, 뿌리째 옮겨온 이 땅에서 하늘 아래 고아 같았던 저희가 어떻게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겠냐고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들 때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던 권사님들이 그리워 전화기를 들고 응석을 부리곤 합니다. 지금은 서울을 떠나 살기에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많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꼭 영락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김운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영락교회는 저의 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를 스쳐 간 탈북민들이 현재 어떤 모습일지라도 친정처럼 돌아올 수 있는 어머니 교회, 힘든 자는 다시 힘을 얻고, 성장한 자녀는 돌아와 섬김을 이어가는 교회, 76년 전 이 교회를 세우며 드린 기도대로 아픈 이방인을 품어주고 민족복음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영락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떠나온 곳을 기억하고 반드시 돌아가는 연어처럼, 저는 제 신앙의 고향이자 탈북민들의 친정인 영락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떠나온 영락교회로, 떠나온 북한 땅으로, 하늘나라 내 본향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렸던 요셉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쓰임 받는 삶을 소망하면서, 영락교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많은 연어와 함께 통일 선교의 장자로서 영락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 6) **만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통일 12,000km

2021년 6월에 진행되는 북한선교대회는 ‘복음통일! 주의소원, 나의사명 – 동행, 12,000km’을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북한선교대회에서는 이미 이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인 탈북자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통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동행 12,000 km’가 주는 의미는 평균적인 탈북여정의 과정이지만 그 험한 여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간은 2021년 6월 16일(수)~6월 20일(주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 하나님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입니다.

노량진교회 원로목사이신 강신원 목사께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한, 이번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드려진 현금은 북한교회 재건(회복)과 자유인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북한선교부(부장 서상현 장로)에서는 기도하며 북한선교대회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① 자유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복음통일을 발견한다.
- ② 자유인은 다시 만난 형제, 자매이자 복음통일을 위한 동역자임을 깨닫는다.
- ③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를 만날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다.



2021년도 북한선교대회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간증 및 북한동포사랑 기도회·영락포럼

6월 2일 수요기도회 1·2부 예배의 간증 및 북한동포사랑기도회를 시작으로 열리는 북한선교대회는 9일(수)과 16일(수)에도 계속됩니다.

18일에는 영락포럼을 온라인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 주제로 만나는 전시회

베다니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는 시작 → 현재 → 소망을 주제로 자유인들의 동행 12,000km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① 시작 : 탈북의 동기와 시작, 여성 그리고 그과정에서 겪었던 자유인들의 감정, 만남, 기다림, 두려움, 고통, 기대 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2021년 북한선교대회를 통해 품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유인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이곳에서 시작된 복음통일의 현재이며 남과 북의 실제적인 만남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간극에서 빚어진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역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자유인이 죽음의 여정을 통해 이곳에 정착했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아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성도들은 그들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동역자로 보냄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발견하며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이미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복음통일의 현재를 발판삼아 다가올 복음통일의 소망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북한선교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선교부 최한윤 목사

② 현재 : 자유인의 현재 삶을 표현하는 전시로서 사회생활, 신앙, 낯섦, 감사 등을 표현하며 지금까지 이끄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전시가 됩니다.

③ 소망 : 복음통일, 상봉, 교회재건 및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여주며 교육부 친구들의 메시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3) 동행 12,000km

영락의 모든 성도가 자유인의 여정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걷는 여정에 동참하도록 돋는다.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자들을 기억하며 나는 기도하며 걷는다!’ 30일 동안 매일 주어진 탈북여정 속에서 품게 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4)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사역은 북한선교대회의 후속 사역으로 자유인가정과 영락교회가정이 서로 기도의 동

역자로 결연하여 함께 서로를 기도하는 사역으로 10가정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함께 복음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동역자로서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북한선교부는 북한선교대회 기간 홍보영상을 통해 ① 탈북의 시작과 동기 및 탈북 여정 ② 자유인들의 남한 사회와 교회 정착, 일상의 삶의 모습을 조명 ③ 자유인들의 앞으로의 계획과 통일을 준비하는 소망을 공감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자유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함께 복음통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동역자임을 깨닫는 북한선교대회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만남**



박상언 안수집사
인천교구
북한선교부 차장

2021년 상반기 복음통일학교를 마치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복음통일학교를 개강하고 6주간 강의와 함께 62명을 수료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해 초에 사역 계획을 세우면서, 상반기는 어렵겠고 하반기에는 가능할까? 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2월 북한선교부 월례회의에서 많은 분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과정에 은평성결교회에서 우리 교회 복음통일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타 교회 분들과 복음통일에 대한 기도협력과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고 뜻을 모아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3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강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의는 모든 세대가 복음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북

■ 2021 상반기 복음통일학교 일정

주차	내용
제1강	오리엔테이션과 북한선교부 사역(자유인사역, 기도사역, 교육사역, 대북지원사역)
제2강	분단 역사. 성경적 복음통일과 한경직 목사의 민족복음화 정신(본 교회 최승도 목사)
제3강	북한 사회 구조와 새 세대 가치관 이해 (구혜미 온누리교회 목사)
제4강	자유인에 대한 이해(하나교회 김종훈 목사)
제5강	자유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동부하나센터 이원희 사무국장)
제6강	복음통일 인식과 통일 교육(장신대 박상진 교수)
제7강	복음 통일 전·후 교회와 우리의 역할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

한 이해’ ‘자유인 이해’ ‘통일인식과 준비’ 등 총 4개 영역 7강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의는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방송으로, 질의와 응답은 현장 참여자와 메시지로, 강의 후 조별 토론은 줌을 이용하여 조장이 주재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장 대다수가 줌 회의를 주관해 본 경험이 없어 서상현 장로께서 줌 회의에 대한 특강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조별 토의가 잘 이뤄져 대면 이상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3월 27일 개강예배, 시편 73:16~28 말씀으로 김운성 위임목사님이 ‘성서에서 얻는 평안으로’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복음통일학교가 한경직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와 신앙의 선배님들의 성경적 통일관을 바탕으로 복음통일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셨습니다.

복음통일학교는 복음통일과 북한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복음통일을 향한 열망이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향후 과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은평성결교회와 함께한 것도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호를 개방하여 범 기독교적 복음통일의 지경을 넓히는 영락 교회 북한선교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최인용 집사
종로·성북교구
북한선교부 복음통일학교팀장

복음통일을 향한 20대의 염원



홍준영(21)

소리 높여 찬양하지 못하고, 소리 내서 기도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에 계신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웃으며 함께 즐거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윤영주(25)

한반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한반도가 복음통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 편견,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평화, 화합, 사랑으로 어서 빨리 한민족을 이루길 기도합니다.



최수지(23)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북한, 하나님을 알 권리와 기회가 박탈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마음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완전하심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자유를 찾고 성령 가득한 기쁨으로 북한과 남한이 하나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임유진(27)

주님 북한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흘린 피와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열매로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전교빈(29)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 뿌려지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북한에서 힘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저희에게 필요를 보여주시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6·25 한국전쟁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 참혹했던 3년간의 한국전쟁(이하 6·25로 호칭)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소련 스탈린의 승인과 중공의 지원으로 면밀하게 작전계획을 세운 김일성 집단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대한민국을 침략한 역사이고 현실이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다. 영락교회는 3주 전인 6월 4일 본당 건물 입당예배를 드렸고 이날은 새 성전에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며 건축비 부족헌금 1,200만 환 특별봉헌도 있었다. 예배를 폐회할 때쯤 비로소 공산군이 남침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 끔찍한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이 글이 우리 젊은 세대가 6·25를 이해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탈린의 최종 승인 받은 김일성의 남한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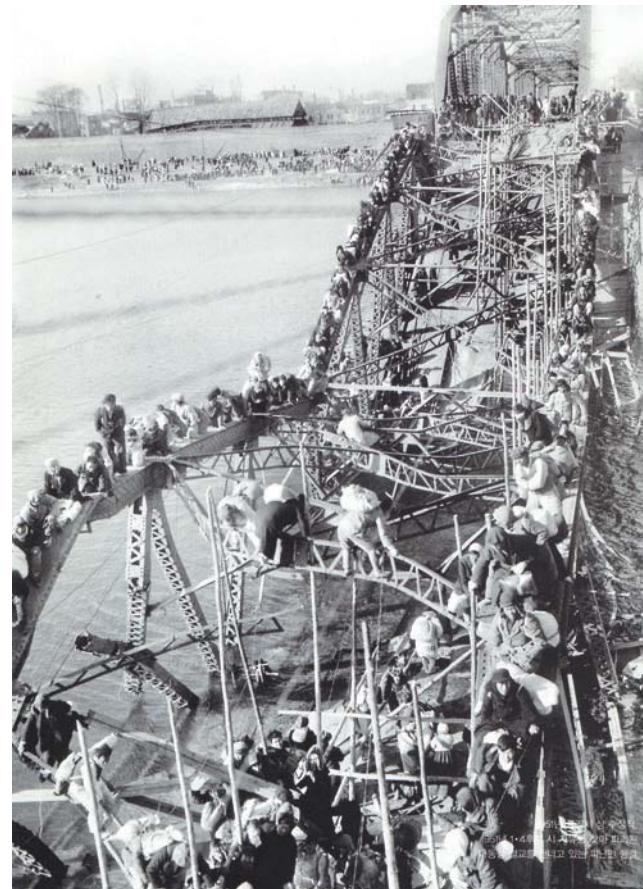
한때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로 뜨거웠던 적이 있다.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506명에게 누가 6·25를 일으켰는지 묻는 질문에 북침이라는 답이 69%(남침 31%)였고 우리의 주적은 어느 나라인가는 질문에 대해 육사 입교생의 34%, 훈련소 입소 병사 74%가 미국이라고 답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386 세대에게 바이블과 같은 존재로 널리 읽혔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 같은 책이나 미국 수정주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의 『남침 유도설』이 원천이라 하겠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있는 종북 좌파세력과 일부 좌편향 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급한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교묘하게 북한을 편드는 방향으로 영향력

을 미쳤다.

하지만 진리는 살아있다. 때가 되면 증거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캐스린 워더스비(Weathersby) 교수는 소련의 공산정권이 붕괴한 뒤 엘친(Boris. N. Yeltsin) 대통령 통치하의 러시아에서 6·25 전쟁 비밀문건을 살샅이 검토, 6·25는 북한의 김일성이 러시아 스탈린에게 1949년 초부터 1950년 초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남침 승인을 요청한 끝에 수락받고 일으킨 전쟁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혀냈다. 워더스비 교수가 스탈린과 김일성 사이에 오간 비밀문서와 회담 내용 등을 분석해 쓴『다시 본 한국전쟁』은 기존의 북침설, 북침 유인설 등을 주장한 좌파 세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더해 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러시아 엘친 대통령이 6·25 전쟁 전후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관해 정리한 216건 총 564쪽의『한국전쟁 문서 요약』이 들어있는 검은 서류 상자를 전달했다. 그 내용 가운데는 1950년 5월 29일 슈티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소련이 제공한 무기와 장비가 이미 대부분 북한에 도착했다. 6월까지 완전한 전투태세를 갖추게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책임과 민족의 비극에 대한 진실 해명에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옳게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6·25는 북침이요 UN군은 점령군’이라는 좌편향 교육은 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 직전 한국에서 미군 완전 철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미군은 1949년 6월 말 487명의 군사고문만 남기고 완전히 철수했다.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우려해서 미국에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한국의



1951년 1·4후퇴시 자유를 찾아 파괴된 대동강 철교를 건너고 있는 피난민 행렬(1951년 풀리처상 수상작)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나 병력 10만 명에 6만5,000명분만 지원되어 북한의 남침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북한은 1948년 2월에 이미 인민군을 창설했다.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 지원을 타진했으며 스탈린은 대규모 군사원조를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부가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에서 승리해, 이후 동북아지역의 국제 정세가 급변했다.



3개월간 북한 공산 침략 아래 폐허가 된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건물 잔해를 뒤지고 있다.(1950.10.1)

중국은 북한의 요청으로 중공군에 편입되었던 조선족계 2개 사단, 약 3만 명(원래 1942년에 결성된 조선의용군)을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은 이 병력으로 인민군 사단들을 편성했다.

1950년 1월에 이르러 스탈린은 유보적이던 입장을 바꾸어 북한의 남침계획을 승인했다. 까닭은 1949년 8월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무너졌고, 거기에 더해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Acheson)이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담겨있는 미국 국비문서 NSC-4812호를 영국인 간첩을 통해 입수해,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의 간섭이 없으리라 예측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해 김일성을 자신만만하게 만든 요인은 당시 남로당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다. 북한이 38선을 넘어 서울을 점령하면 자신들에게 호

응할 3만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지하에서 대기 상태라는 허상을 믿고 있었다.

주일 아침의 기습 - 무력하게 무너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위 38도 분계선에서 기습공격을 강행한 북한군은 단 3일 만에 서울에 입성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첫째, 전쟁 직전 한국군의 전력 상태는 북에 상대가 못되었다. 북한의 병력은 우리 국군보다 두 배나 많은 10개 보병사단 3개 독립연대 18만2,000명인데 비해 국군은 8개 보병사단 2개 독립연대로 9만4,000명이었으며 북한 전투 장비는 남한의 3배가 넘었다. 국군에는 한 대도 없는 공포의 전차 242대를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주포 176문, 아군보다 6배나 많은 곡사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우리 공군은 연습기 22대뿐인데 북한 공군은 전투기를 포함해 2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이 이처럼 완벽하게 남침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 국군은 군 고위층에 침투한 적의 첩자로

인해 남침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전쟁 발발 수개월 전부터 남침 징후가 전방으로부터 속속 보고되었으나 묵살 내지는 무시했다. 전쟁 발발 2주 전 대대급 이상 전·후방부대 교대가 이뤄졌고 각급 주요 군부대 지휘관의 이른바 6·10 인사이동이 있었다. 전쟁 발발 바로 전날인 24일 0시를 기해 2주 전 내렸던 비상경계령마저 해제되었다. 많은 장병이 농번기 지원 명목으로 휴가와 외박을 나가 부대에 남아있는 병력은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6월 24일 저녁에는 용산 육군 장교클럽 낙성 파티로 육군의 고위 지휘관과 본부 간부들이 밤늦게까지 댄스파티를 벌이고 뿔뿔이 흩어졌다. 적의 침공 사실이 보고되는 시간, 어떤 대책도 강구치 못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다.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발령된 것은 급보가 들어온 지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였고 대통령은 10시 30분경이 되어서야 보고를 받았다. 부실한 전력 대비상태, 해이해진 군기로 인한 부실한 대비태세가 빚은 결과는 기가 막힐 일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한 달 후에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다. UN을 통한 미국의 신속한 개입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에 힘입어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회복하고 북한 땅 청천강 전선까지 밀고 올라갔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현재 휴전선 위치에서 71년째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교훈

3년여간의 전투, 시간이 위기였고,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 1950년 6월 27일 재소집된 UN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에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키로 결의하고 16개국이 육·해·공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으며 그 밖

에 많은 나라에서도 경제·의료·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해 주었다.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한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3일까지 3년여에 걸친 전쟁은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남겼다. 6·25 인명 피해 통계에 따르면 국군 전사자 13만8,997명, 부상 45만742명, 실종 2만 4,495명이었고, 경찰피해도 전사 8,218명, 실종 1,934명, 부상 6,760명의 피해를 보았으며, 이산 가족 1,000만여 명을 기록했다. UN군 전사자는 4만670명, 부상자 10만4,280명, 실종 4,116명이 발생했다. 이중 미국의 사망자가 절대다수였다. 6·25전쟁 기간에 종군목사 140명이 참전했는데 그중 13명이 애석하게도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했고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갔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6·25전쟁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UN군을 파송 받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북한이 일으킨 6·25남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전 상태일 뿐이다. 핵무장을 통한 적화통일 야욕은 변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불씨를 모으길 원한다. 만남



이재규 은퇴장로
서초교구
전 예비역기독군연합회 회장

“은혜 아니었으면 회사 못 다녔을 것”

어느 여름, LG사이언스홀 주최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하드웨어 연구원에 대해 강의했다.

아이들에게 커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회사 내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15년간 LG전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는지,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생각해 보았다.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직장생활을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그날의 강의내용을 발전시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직장생활하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강의내용으로 정리하여 『은혜랑 회사 다니기』를 출판했다.

『은혜랑 회사 다니기』에는 직장생활 중에 주님께서 함께해주신 많은 경험담이 들어있다. 먼저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싶다. 당시에는 모든 PC에 들어가는 ODD(Optical Disc Drive)인 CD/DVD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하드디스크가 발전하면서 우리 회사는 해당 사업을 접게 되었다. 연구소는 해체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냈다. 하지만 ODD처럼 월 200만 대씩 대량생산하는 제품을 대체



주님과 함께하는 회사생활. LG를 우리는 Land of God(주의 나라)라고 부른다.

할 아이디어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른 연구소로 뿔뿔이 흩어졌고, 생소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직장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과 역시 대부분 바닥을 찍는 상황에 나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회로를 설계하는 HW 엔지니어한테 SW 코드를 짜는 업무를 주는데, 안 받을 수 없으니 그대로 받기도 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이럴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 조직은 해체된 후의 새로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평안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

히 그때의 새 조직도 지금은 해체되어 새로운 업무를 찾고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통해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과제를 계획할 수 있었다.

다른 한 가지는 신우회 활동이다. 신우회는 회사 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이다. 직장생활 중, 내게 힘이 되어준 신우회! 회사에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내가 속해 있는 LG전자 <마곡 신우회>는 정기 모임으로 화요일 점심예배와 목요일 아침 기도모임이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바쁘게 직장 다니면서 그런 모임에 참석할 여유가 있느냐고. 그때 나는 말한다. 신우회 모임이야말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회사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신우회 활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했다. 회사 내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있는데 종교모임 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부활절 달걀도 돌리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또 선교사님을 초빙해서 간증도 들었다. 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선교사들이 세상 곳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바로 회사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 말씀을 전해야 해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뭔가 마음이 살짝 뜨거워지면서 반성도 되었다. 우리 신우회 동역자들은 회사 이름을 LG라 쓰고 ‘Land of God’이라 부른다. 전도는

쉽지 않지만, 선한 모습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은혜랑 회사 다니기』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이다. 나는 LG전자 내 동아리인 친환경 적정기술 연구회 모임에도 참여한다. 적정기술이란 최신의 최고급 기술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기술을 뜻한다. 그동안 10%의 잘사는 사람들을 위해 90%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90%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의 연구원들이 그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기술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이 모임 멤버 대부분이 크리스천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한 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고파에서 최하위 등급인 D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로 즐겁게 직장생활하는 나만의 스토리를 크리스천 청년들과 공유해보고 싶다. 나는 믿는다. 직장생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직속 임원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만남**



박세환 집사
인천교구
부부선교회

주일설교 말씀을 그림으로 나눠요

이정현·류화정 집사 부부 _ 종로·성북구

고등학생인 딸 예은이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희와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과공부나 소그룹 나눔 등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되새기는 부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듣고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말씀노트를 기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은이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말씀을 붙잡기 어려웠던 작년 5월쯤 낱장으로 된 종이에 설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웃 집사님께 선물 받은 말씀기록노트에 기록하다가 가을 무렵부터는 말씀과 그림을 수정하기 쉽도록 아이패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지금까지 지속하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은이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글과 그림으로 쉽고 재미있게 담아 표현함으로 예은이의 마음 판에 먼저 새겨진 이 말씀들을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카톡을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함으로 일주일을 묵상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니 은혜입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카톡을 주고받는 저의 고객들과 추수할 곡식이 많은 밭에 있는 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나마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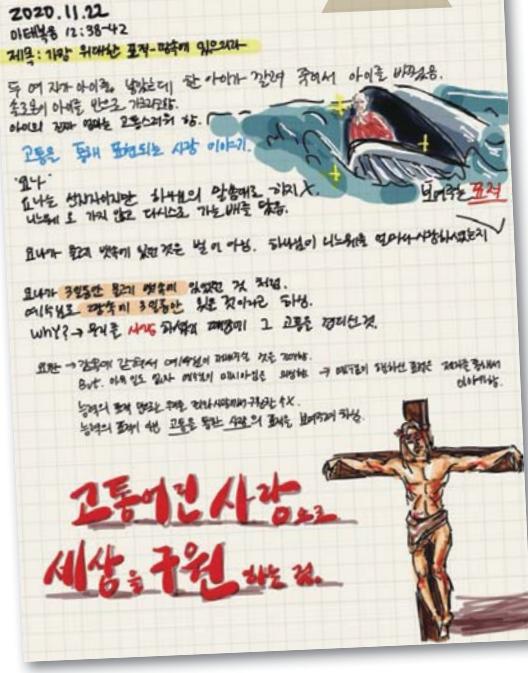
바라옵기는 예은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한 말씀기록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더 깊이 알게 되며, 마음 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평생 예은이 밭의 등이요 예은이 길에 빛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31)

귀한 자녀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 아직도 좌석 기준 20%의 성도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학교는 여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녀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희도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고, 작년에는 <119 말씀>과 <한친구 운동>에 이어 현재는 <말씀대로 365>를 통해 지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신 것인데 예은이에게 허락하신 재능들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지만,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받아 말씀이 심어진 예은 이를 통해 예은이의 손과 마음과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보배로운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자신의 풍요로 인해 주변이 풍요로워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뜻인 줄 믿으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남**

“넌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단다”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진로문제, 대인관계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인관계로 인한 갈등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더 많이 힘들어한다. 이 관계적 어려움으로는 또래 친구들에게 듣는 험담, 놀림, 왕따, 따돌림, SNS상의 조롱 등 그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일컬어 ‘학교폭력’이라고 말한다.

친구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 ‘싸움’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될 정도로 심각해진 학교폭력의 유형¹으로 언어·심리적 폭력, 신체·물리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 및 매체 폭력 등이 있다.

첫째, 언어·심리적(정서적) 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퍼뜨리는 행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해서 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중학생이던 A양은 매일 어디서든 무리와 함께 불쾌한 욕설과 깔깔거리는 웃음을 들어야 했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연예인 할까”, “어차피 재는 한물간 연예인”, “저러니 왕따 당하지” 등의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을 당해왔다. A양에게는 점점 큰 명으로 번졌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고등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서○○ Instagram〉

둘째, 신체·물리적 폭력은 손·발을 때리거나 밀쳐서 고통을 가하는 행위(폭행), 물건 던지기, 꼬집기, 멱살 잡기, 넘어뜨리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침뱉기 등,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속이거나 유혹을 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막는 행위(감금) 등을 포함한다.

사례) 매우 활동적인 내담자 B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 놀리는 같은 반 친구로 속상해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체육 시간에 그 친구와 갈등이 있던 중 친구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어 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1 송재홍 외 공저,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학지사



셋째, 따돌림은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거나 면박을 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려는 것을 막는 행위, 카카오톡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한 명을 초청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넷째, 사이버 및 매체 폭력은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이나 사생활·모욕·욕설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위협·조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그림 혹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음향 혹은 영상 등을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 중학생인 내담자 C양은 전학 온 친구를 잘 쟁겨주다가 오해가 생겨 소홀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C양에게 톡으로 불쾌한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으로 심각해진 수준이어서 매우 힘들어 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문제해결력이 부족할 뿐더러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다. 학교폭력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향이 되기도 하고, 또는 폭력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자체가 어려워져 학업문제 등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신체적 폭력일 경우는 외상으로 드러나는 상처이므로 주변이 알게 된다. 그러나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을 경험할 경우, 주변인이 알게 되면 더 못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은 깊어진다. 지나치게 착한 청소년일수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심리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은 쌓여만 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부모님이나 도와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도 망설여진다면 비밀보장이 되는 〈전화상담(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s://www.cyber1388.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https://www.teen1318.or.kr/>)〉 등 무료 상담기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대인관계 기술과 자기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하므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나 자신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은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속해서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닌 자녀와의 상호작용 대화방식으로 자녀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정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 자기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활용하여 좀 더 건설적인 대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통해 어려움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의 재경험으로 더 나은 삶을 준비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 자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특별함을 기억하여 날마다 삶이 정서적인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남**



이영미 전도사
상담부 가정·청소년 상담

영락의 2030이 생각하는 ‘가정과 신앙’

- 132명의 영락 청년이 직접 답하다

세대간가치관차이
가정과신앙
혼자는외로워
신앙이야기나눠
가족일부
나홀로교회
교회

지킬래
신앙소통안해
감사
배우자도기독교인
신념을
믿음의유산
소통기회적어
사랑베풀어
결혼

큰영향없어그냥별로
감사의찬양의대상
초등부터영락교회다녀
이후출석

가족모두함께
주님안행복한가정이루고파
그럭저럭
웬만하면
부모님께좋은영향
결혼꼭할거야
세대를이어가는믿음
교회생활지지축복
세대간소통
모태신앙

영락교회는 청년과 장년이 함께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8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3대는 물론, 4대가 함께 출석하며 5대 이상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동체는 대학부와 호산나찬양대, 청년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자신과 가족, 믿음에 대해 어떤 기반을 가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 세 부서에 속한 청년들에게 구글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가정과 신앙’을 키워드로 약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과 문장도 청

년들에게 익숙한 말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영락의 ‘2030 세대’ 132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세대 규모에 비하면 응답자 수가 적은 것이 아쉽지만, 현 세대의 가치관 진단과 목소리를 듣고자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표본수 제한과 방법론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청년들의 현주소를 이해하려는 첫 시도이기에 영락교회 공동체 모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묻고 답한 주제는 첫째 ‘가족의 신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둘째 ‘영락교회의 세대 간 소통에 대한 견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상’입니다.



누가누가 참여했을까? 132명을 살펴보니

‘19~24살’ 22명, ‘25~29살’ 48명, ‘30~34살’ 49명, ‘35살 이상’ 13명으로, 2030 세대가 골고루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남성 53명, 여성 72명이었으며, 성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소속 공동체는 대학부 36명, 청년부 57명, 호산나찬양대 33명이었습니다. 기타 6명은 선교부, 주일학교 교사, 일반예배 참석 등으로 답했습니다.

* 이 설문은 청년들이 친근하게 사용하는 말투로 구성했으며, 정식 설문조사 방법론이 아닌, 간이 양케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 가족의 신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영락 청년들에게 가족은 신앙의 출발점이자 터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형성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관해 물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교회를 다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명(63.1%)이 ‘가족 모두 함께 다닌다’라고 답했고 31명(23.8%)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가족과 같이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17명(13%)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7%가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교회의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가족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라는 질문에 ‘많이 그래(10명)', '그래(29명)', '보통(49명)'에 답한 경우가 전체의 67%에 해당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가족과

“

**가족과 부모님이
신앙에 긍정적 영향**

”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은 16명으로 전체의 12.1%였습니다. 영락 청년들은 가족과 신앙 문제에 관해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주지요.

다음 질문은 더 본격적이고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가족 또는 부모님의 신앙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어?’라는 질문이었죠. 앞선 질문에서 많은 영락 2030세대가 윗세대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소통의 효과 덕분이었을까요? 영락 청년 가운데 가족과 부모님의 신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가족 또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5개 척도로 구분해 답을 얻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어’가 57명(43.5%), ‘어느 정도 좋았어’가 55명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약 85%가 가정 내 윗세대의 신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피력한 것이죠. 가정의 신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청년도 물론 있었습니다. 12명이 ‘영향은 없었어’라는 선택지를 택했고 ‘그냥 별로였어’ 5명, ‘아주 불편했어’ 2명으로, 가족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한 경우가 19명으로 응답자의 14.4%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락 청년들은 부모님의 신앙 가운데 어떤 측면을 ‘감사한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까요? 10개의 선택지 중 중복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주관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은 ‘가족/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76%)’였습니다. ‘가족/부모님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지지하고 축복해주셨어(68.2%)’가 그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부모님이 내게 신앙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주셨어(52.7%)’, ‘가족/부모님의 존재가 내게는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야(51.9%)’라는 답변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의견으로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키워주심에 많이 감사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이 생각이야 말로 영락의 많은 청년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과 가정에 대한 중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없다’로 답한 14.4%의 소수에도 주목했습니다. 가정은 무한한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갈등을 겪는 복잡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의 갈등과 다툼을 사랑과 신뢰로 승화시키는 데 있겠지요. 어떤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서 발전적 소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의 신앙으로부터 불만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있는 대로 다 골라줘’라는 질문에 59명은 불만족한 것에 대한 선택을 표시했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가정과 부모님에 감사함을 표현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이 질문에 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인 부모님이지만, 불만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태도에 반발해서 ‘탈영락’(영락 탈출)을 꿈꾼 적이 있어!’라고 답한

7명 중 5명은 ‘가족/부모님을 통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라며 가정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했던 응답자였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어떤 점에서 청년들에게 문제의식이나 불만을 일으켰을까요? 가장 많은 답은 ‘교회 안과 밖의 언행불일치가 심하셨어’였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답한 59명 중 22명(37%)이 꼽았습니다. ‘생활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셨어(20명)’ ‘내가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강요했어(17명)’, ‘내가 교회에 시간 쏟는 걸 싫어했어(17명)’라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열성적인 교회 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가족에게는 소홀하셨어’라는 답이 10명 있었습니다.

2. 영락교회의 세대 간 소통에 대한 견해: 교회 내 세대 간 소통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영락교회에는 ‘갓난아기와 초·중·고교생부터, 종손자를 둔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대가 존재하는 영락교회 내에서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까요? 구석기 시대 혈거 생활을 하던 인간들의 동굴에 ‘요즘 애들은 베릇이 없어!’라는 글이 쓰였다 는 말도 있으니까요. 인류 역사에서 세대 간 소통이 완벽히 원활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70년 역사에 4대 이상이 함께하는 영락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소통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아주 잘 이뤄지고 있어(5명·3.8%)’는 예상

“
가치관 차이 이해하고
만남, 협력활동 통해
소통의 가능성 확대”

,,



대로 소수였지만, ‘적당히 잘 되는 것 같아(15명·11.5%)’, ‘그럭저럭(34명·26%)’이라고 답한 수를 합하면 우호적 답변이 41%에 이르렀습니다. 세대 간 소통 단절을 걱정하는 세간의 통념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소통의 가능성이 훨씬 열려있다고 봐야겠지요.

물론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54명·41.2%)’, ‘전혀 아니야(23명·17.6%)’가 약 59%를 차지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정 공동체에서 이뤄지는 신앙적 소통에 우호적 답변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교회공동체의 세대 간 소통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질문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답은 ‘세대 간 문화와 이념, 가치관 차이 때문에(83명·66.4%)’였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답한 내용을 보면 세대 간 소통의 문을 열 만능열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적어

서-같은 교회이지만 서로 활동하는 공동체가 다르니까(66명·52.8%)’, ‘세대 간 차이를 넘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주제나 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62명·49.2%)’라는 답이 많았거든요. 이런 답변을 보면 교회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확대할 방법을 청년들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년과 장년 세대의 접촉과 만남, 협력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접촉과 만남,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적잖은 청년들(51명)은 세대 간 소통 부재의 원인으로 ‘상명하달(上命下達), 톱다운(Top-down) 방식의 소통 구조’를 짚었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시도나 활동에 대해 교회 내 기성세대의 지지가 인색해서’라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말을 이 자리에도 불러온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상: 나는 이런 가족을 원한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매사에 1등 하는 대한민국인데, 이것만은 1등일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결혼하지 않는 ‘비혼’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핵가족으로 이뤄져 있는 일반적 가정’을 일컫는 ‘정상가족’이라는 말에는 비판적인 의식이 담겨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에 대항해 다른 형태의 가족도 정상적인 가족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 이죠. 설문조사 결과는 영락 청년들은 기존 가족의 개념을 신앙의 근거로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해체하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결혼에 관한 생각입니다. ‘결혼을 꼭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62명(47%)이 ‘꼭 할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웬만하면 할 거야’에는 41명(31.1%)이 답했습니다. 반면 결혼이 ‘정말 하기 싫다’ 선택지에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사회 추세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모습이지요.

왜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가장 많이 꼽은 답은 ‘주님 안에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93명·80.2%)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솔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건 외로워’(48명·41.4%)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결혼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59명만이 답했습니다. ‘혼자 살

기도 힘든데, 더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36명·61%)가 가장 많았습니다. 영락 청년들에 게도 경제적인 문제가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영락 청년들이 지닌 결혼관도 주목할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꼭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야 해?’라는 질문에 ‘당연하지’(26명·19.7%) ‘그러면 좋다’(77명·58.3%)가 78%로 대부분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원했습니다. ‘미래의 가족에서 비 개신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73명(56.6%)이 ‘갈등이 생길지라도 신념을 지킬래’에 답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비혼공동체, 셰어하우스 거주, 반려동물과의 거주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이 64%, 우호적 답변이 3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 다수가 전통적 가족 개념을 중시하면서도 점진적으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만남**



“청년이 교회의 미래다”, 교회·노회·총회, 청년과 소통 절실

지난 5월 16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정한 청년주일이었다. 청년주일을 맞아 예장 청년전국연합회(이하 장청)가 진행한 〈청년주일 청년생각〉 설문조사를 교단 언론『기독공보』가 5월 8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예장 장청 임원 등 32명이 참여한 이 설문은 교회와 노회, 총회 등 교단과 교회 단위에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청년들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응답자 수의 한계 등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사가 교회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담고 있다는 점과 해외 교단의 청년 참여 확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남』 지면에 요약해 전한다.

먼저 ‘교회, 노회, 총회 정책에 청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입장 반영이 매우 부족하다’(50%) ‘거의 안 된다’(40.6%)로 나타났다. 교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동의회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참석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40.6%) ‘요청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12.5%)고 답했다. 그러나 ‘목사 또는 청년 그룹의 의견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면 조율할 수도 있다’(31.3%)는 답이 나와 청년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독공보는 보도했다.

기독공보는 ‘예장교단에서 청년연합회가 활동하는 노회는 13곳 정도이며,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노회에서 연합활동에 참여하는 청년 규모는 대부분 5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설문에서 청년들은 ‘청년활동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노회 청년연합회 재건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청년 발언 기회 제공 △장년과 청년 간의 대화 모임 확대 △취업, 연애 등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청년 장로 선출 또는 총대 할당제 도입 등 참여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기독공보는 이 설문 결과와 함께 청년 참여가 활발한 미국장로교회(PCUSA)와 대만장로교회(PCT)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미국장로교회는 총회 총대와 별도로 선교사-신학생-청년-에큐메니컬 사역자로 이뤄진 자문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청년이며 모든 표결에서 자문위원회 투표가 먼저 이뤄지고 이 결과를 확인한 후 총대 투표가 이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청년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지난해 총회에서 149명의 자문위원 가운데 127명이 17~23세의 청년이었다고 기독공보는 전했다. 이 기사에서 미국장로교회 총회 한인목회실 조문길 목사는 “총회가 각 노회에 청년 자문위원 1인 이상 파송을 요청하고 대부분 노회가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장로교회는 청년사역위원회 의장에게 당연직 총대권을 부여해 청년 의견이 교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남**

군선교 현장의 변화와 희망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시 한편을 보았다.

포스트 코로나1

나태주

세상이 많이
헐거워졌다
쓸쓸해지고
많이 늙었다

거리가 훨씬 느슨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졌다
바람이 더 많은 하늘을 차지하고
구름이 많아졌다

가까운 사람 멀어지고
먼 사람은 더욱 멀어진 날들

잘 있겠지 그래 잘 있을 거야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나누면 좋으련만

허!
어머니도 그 나라에서
편히 계시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멀어지고, 멀었던 사람들은 더욱 멀어진 것 같은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공감되었다.

군선교 현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병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불러온 변화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장병들은 게임과 유튜브, 넷플릭스 시청을 즐기며 주일에도 생활관에서 각자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세계로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다. 선·후임 간 대화는 사라지고 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군 장병의 자살사고 비율이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군대에도 비대면 문화가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많은 회의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상급부대는 소집회의 및 교육을 자체하고 있고, 교육부대의 많은 교육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소그룹 교육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 장병은 부대 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점심시간도 부대마다 시간을 달리해 장병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었을 때는 많은 부대가 부대 내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장기간 온라인으로 종교 행사를 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6일 한국군종목사단은 (주)지엔컴리서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군인교회 교인의 신앙 의식과 생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의 군인교회 출석 교인(군종목사, 민간인 교역자, 장병, 군인가족, 군무원 등) 약



부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군선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500명을 표본 추출해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예배는 여성과 군인 가족이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병사들의 참여 비율은 5.1%로 가장 낮았다.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경우 역시 병사들이 14.4%로 가장 높았다. ‘주일성수를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온라인 예배로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56.5%로 온라인 예배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코로나19 동안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 간의 교제와 돌봄’(간부/군무원), ‘개인적 신앙 성숙’(병사)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강화해야 할 것으로 20대와 병사들은 ‘교회 밖에서 기독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육’을 꼽았다. 이에 비해 장년층은 ‘교회 공동체성 강화’를 더 많이 응답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군대 문화뿐만이 아니라 군대 선교 현장은 그 자체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 장병들의 선교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첫째, 장병들의

신앙생활 비율의 급속한 감소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증가,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과 인구감소로 인한 부대 감축 등이 주원인이다. 군선교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장병들의 진중세례식 세례 인원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00년 18만 7,156명에서 2018년 13만 1,764명으로 줄었다. 둘째, 군선교를 통해 어떤 기독교인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다. 과거 군선교가 잘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진중세례식을 많이 수행했으며, 군부대를 방문한 민간교회가 간식을 제공하면서 찬양위문예배를 드리고 설교자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처럼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는 군선교는 기독교의 정체성 상실과 기독교의 거룩성을 지속해서 격하시키고 있다.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기독교 신자라는 ‘공식’을 만들어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게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선교 전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군선교의 모체가 되는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부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선교전략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는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에서 군인교회는 물론 한국교회의 문제의 근원을 신학적 빙곤이라고 말했다. 신학적 빙곤은 복음의 부분적 이해·오해·왜곡에서 나타난다. 예수 복음의 열쇠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나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땅에서의 현재적 의미를 묵과해 버린 것이다. 대다수 군인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불교적 의미의 내세처럼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플라톤적 이원론으로 보면서 구원을 우

리의 영혼이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오고 지금 성령의 힘으로 그가 행사하는 주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사랑 계명의 요구(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_마태복음 22:37, 39)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자유·정의·평화 등의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이해는 더더욱 전무하다.

그 결과, 성서에 대한 신학적 사고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왜곡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를 등한시하게 되었다. 왜곡된 복음이 군인교회의 신학적 빈곤이 가져온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면, 그것이 초래한 윤리 부재는 신학적 빈곤의 열매이다. 즉 그리스도인 장병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생활관에서 사랑을 베풀며 차별을 막고 공의를 추구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주일성수, 헌금하기, 전도하기, 술·담배 하지 않기, 불상에 절하지 않기로 끝나는 것이다. 군대와 사회에 자유·정의·화평·회복 등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현재적 실재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군인교회의 신학적 빈곤은 선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초래했다. 많은 군인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을 이전 종교를 버리고 영접기도와 사영리를 고백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의 살롬을 실현하고 확대하는 일을 하게 하는 성서적 선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지어 군인교회가 자유·정

의·평화·환경과 문화적 회복 등을 도모하는 일을 배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선교를 편협하게 이해하는 한 예수께서 교회에 당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살롬(구원)은 실재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인교회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장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신학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군선교지도자는 군대 내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신학교육 등 양육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고 성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얼마 전 수요성경공부 후에 한 이등병 형제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에서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이 성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러한 질문은 필자가 약 15년 군생활 중에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세대가 희망이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군 장병들이 한명이라도 더욱 늘어나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장병들이 군대에서도 충만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 **만남**



유경수 군종목사
육군소령

고통받는 M국,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황○○ 선교사



연일 유혈사태를 빚고 있는 M국 군부 쿠데타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도 M국의 민주화를 위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새벽 아내가 아직 잠자리에 있는 저를 급히 깨웠습니다. 순간 뭔가 큰일이 터졌다 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군부는 작년 치른 총선에 불만을 제기하며 최근 들어 총선 무효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1월에는 군부가 불법 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문이 M국 전역에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월 말 군부는 기자 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월 3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청년들과 비대면 모임을 했는데, 많은 청년이 쿠데타를 우려했습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건만 군부는 M국 국

민의 희망을 저버린 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첫 주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는 듯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첫 주말 M국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들도, 현지 사역자들도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선교사이자 외국인으로 타국 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M국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함께 하고자 저도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M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소위 Z세대라

“젊은이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M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M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고 불리는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Z세대는 199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인터넷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M국 젊은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군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위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 청년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저로서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청년들에게 전화하며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조심하라고 당부를 거듭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도 M국 상황은 연일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수도 네피도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10대 여학생이 군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일을 계기로 시위가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월 들어 군경은 시위대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기 시작하면서 시위대를 향한 조준 사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간에는 시위에 참여하는 공무원, 의사, 학생을 체포하기 위해 인터넷과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군부는 민심을 수습한다는 미명으로 범죄자를 사면하여 마을마다 방화, 약탈을 자주하고 M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군경의 총격을 막기 위한 엄폐물을 설치한 도로 곳곳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루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3분 정도 운전하여 큰길로 들어

서는 순간,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소리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멀리서 총성과 고함이 들렸습니다. 급히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그거리에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거나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M국 전역에서만 85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3월 26일 대사관에서 마련한 임시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초 아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 한국을 잠시 방문할지 고민했지만, 코로나 이후 M국 재입국이 용이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던 중이었는데, 교단 선교회의 철수 권고를 받고 힘들게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2년 2개월 만의 한국 방문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설레고 기쁜 고국 방문길이었겠지만, M국을 떠나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사역자에게 곧 돌아오겠다며 다짐하는 중 죄책감과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M국을 생각하면 목이 메고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잠언 14:32)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의인은 소



정국 불안으로 M국 현지의 선교 사역들이 중단된 가운데 M국 내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요청된다. 사진은 2020년 현지 개척교회의 성탄예배

망을 발견합니다. M국 젊은이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M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있기에 여전히 M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태초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때에도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M국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M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M국은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국은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상처 받은 M국 국민이 밤새 두려움에 떨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위해, 이 땅에 소망이 식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40% 정도가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M국에 쿠데타가 있을 때마다 M국 교회는 국민 편에 서기보다 안전을 위해 군부를 자극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M국 최대 교단인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단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대 편에 섰습니다. M국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 고통 받는 M국 국민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건강과 아이들의 한국 적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M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M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는 일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하나님의 훈련법

- 서울역 노숙인 전도 간증

매월 셋째 주일 오후 4시에 서울역 광장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도부 ‘서울역 노숙인 전도팀’ 팀원들입니다. ‘서울역 노숙’이라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한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이 빚으시는 사랑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도사역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겉으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마치 혼자만의 성취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온갖 결핍과 집착으로 제 안에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고 늘 비교의식 속에 살며 하늘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죄의 벽은 날로 높아만 갔기에 마치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주께서 저와 함께 슬퍼하시는 모습을 느끼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나는 죽었습니다, 제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써주시옵소서!”라는 고백하게 되었죠. 그 후부터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훈련법으로 저를 전도자로 세워 가시며 믿음의 근육을 단련해주십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인들에게 전도하는 모습

제가 다니는 직장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 동료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매년 2~3명의 자살자가 나오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솔직히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 모르는 사람의 자살로 인한 비보가 전해질 때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그쳤지만, 어느 휴일 지인의 자살 비보를 들었을 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많은 동료가 알고 있음에도 내가 그들에게 천국과 영생, 구원 어느 하나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잘못 같았습니다. 바로 교회에 전도폭발훈련을 신청하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전도는 매월 셋째 주일 오후 4시에 전도부를 섬기시는 황정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청년선교회와 전도부 봉사자 5~10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상황에 맞는 전도 물품(200~300인 분량)을 가지고 가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에게 기도해드리며 섬기고 있지요.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며 노숙인들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를 함께 챙겨가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저에게 신앙을 다듬어가는 훈련소입니다.

‘서울역’이라는 신앙훈련소에서 하나님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훈련법을 통해 교만했던 저를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서울역 노숙인 전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거친 욕설, 술판, 싸움에 직면할 때였습니다.

2018년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했을 때 저를 담당했던 훈련자님과 처음으로 서울역 현장전도를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경험한 서울역 노숙인 전도의 충격이 너무 커서 ‘훈련을 포기할까?’ 생각이 들 만큼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 악취와 여기저기 벌어진 술판, 자욱한 담배 연기, 떡살 잡고 싸우는 모습들. 거친 욕설은 그들의 일상 언어 자체였어요. “선생님!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말씀드리면 정성껏 준비한 전도물품을 훑 집어던지며 “예수쟁이들 저리 꺼져! 이런 거 주지 마!”하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세요. 시간이 흘러 저도 어느덧 전도폭발훈련 훈련생에서 훈련자로 세워졌지만, 아직도 그분들을 섬길 때마다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서울역 노숙인 전도를 통해 받은 은혜

어느 날 정말 적은 인원으로 서울역을 가야 했습니다. 노숙인들은 현장을 찾은 저희를 보고 자연스레 줄을 서기 시작하지만 이내 서로 반겠다고 밀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이 한 분 두 분 저희를 도와 무질서한 현장을 정리하면서 끝날 때까지 옆에서 저희 팀원들을 경호해 주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분이 저희를 해코지할까 봐 무서웠는데, 그분은 남은 물품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곳,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책임지고 전해드리는

역할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고 감사했던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몇몇 분들은 지금도 저희를 도와 함께 섬겨 주십니다.

어느 날 평소 활발한 성격의 직장 후배가 출근하지 않아 알아보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뒤 통화했는데 “나 진짜 죽으려고…”하는 후배의 말에 저는 큰소리로 즉시 외쳤습니다. “넌 형이랑 비교하면 절대 죽을 수 없어!” 저의 이 말을 들은 후배와 긴 시간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이후 후배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아직 완벽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오기로 약속하고 지금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후배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옳은 길이라는 것 깨닫게 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같이 빛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만남**



윤선종 집사
인천교구, 청년선교회
전도부 실행위원

불타버린 교회에 부어주신 큰 사랑



지난 3월 19일 김운성 목사님(사진 가운데)과 영락교회 제직 성도 여러분이 불타버린 전곡중앙교회를 찾아 복구지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밤 11시. 고단했던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랜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기도 전에, 전화 온 시간과 전화기에 표시된 이름만으로도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와 전해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준아! 지금 지역 온라인 SNS에 소식이 올라왔는데, 너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 큰 화재가 났대. 너 알고 있어? 부모님은 괜찮으신 거야?”

부모님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에 부모님의 안전부터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옷을 갈아입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중앙교회

로 향했습니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었습니다.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했고, 교회 옆 사택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교회는 전소될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안전하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전소 위기라는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새벽 1시쯤 현장에 도착해보니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거센 불은 교회 외부뿐 아니라 내부도 모두 태우고 있었습니다. 유독가스와 연기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 분사된 물은 추운 날씨로 인해 지면에 얼어붙었고, 빙판길을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타오르던 불은 새벽 3시 30분쯤 교회를 전소시킨 후에야 진압되었습니다.

화재 현장 한쪽 구석에서 부모님과 함께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장 컸지만, 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삶의 대부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기에 마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만 같은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제 개인의 추억만 간직한 장소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성도님이 오랜 기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룩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예배 처소를 잃은 슬픔은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모인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장을 가득 채운 매캐한 화재 냄새와 뼈대만 남은 건물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웠습니다. 현실은 참 막막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큰 어려움이었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모두의 마음에 드리운 절망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그 절망을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지인께서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와 한 마음으로 위로해주셨고, 전혀 관계가 없던 여러 교회의 성도님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주셨습니다.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가운데 영락교회에서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은 저와 모 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경험에 되었습니다. 11교구(노원) 성도님들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귀한 현금을 전달해 주셨고, 섬기고 있는 고등부와 안수집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긴급지원금으로 큰 힘을 더해 주셨고, 3월 7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위임목사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신학교 시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귀한 진리 한 가지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며, 이 고백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하나의 교회이다.’

사랑하는 영락 성도 여러분! 저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교회와 세계의 여러 선교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품고 공교회성을 회복할 때, 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의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

별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백현준 전도사
노원교구
고등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상담부

상담부는 외롭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손을 내미는 내담자에게 마음을 나누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과 공동체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모임을 통한 주님의 사역이 외형적으로 휴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영적인 메마름과 심리적 불안함, 외로움의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위해 상담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상담부는 생명의 전화상담과 매월 재교육을 통해 상담원의 자기성찰을 점검하며 준비된 상담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며 소통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담부 사역 문의 : 02)2280-0171

상담사역

상담사역의 주된 사역은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영락의 전화 (02)2275-1004, 1007)로 걸려오는 내담자와의 전화 대화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상담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목회 상담, 가정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통, 법률, 세무, 노무, 금융, 경제 등)자의 섭김이 있습니다. 결혼 정보 상담을 통해 적령기에 있는 남녀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돋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상담사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역

전화상담원을 위한 재교육으로 월 1회 전문상담학자를 초빙해 상담원의 자기성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원 간의

교제와 나눔은 줌(zoom)을 통해 위로와 격려 및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지속적인 관계성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 양성을 위해 영락상담대학이 2년(총 4학기)교육을 실시해 이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목회상담협회의 기독교상담사 자격(2급)을 습득해 상담원으로 섭기도록 전문상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예비 상담원들이 온라인교육으로 『상담의 실제, 상담의 기법』, 『위기상담의 이해』 등의 과목을 열정적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2학기 상담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가정사역

1. 결혼준비교육

행복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 결혼 전에 결혼준비교육(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6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어머니학교(5월 29일~7월 17일, 온라인)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되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영락의 전화>로 진행되는 전화 상담



매월 zoom으로 진행하는 상담원 교육

도록 마더와이즈(지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1기 사역은 어머니들이 결혼생활, 자녀 양육, 일과 사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는데 소그룹을 통한 성경 나눔, 멘토링, 중보기도로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3. 아버지학교(6월 3일~7월 1일, 온라인)

아버지들이 일에 대한 사명감과 목적의식을 품고 일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돋는 FWIA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돈·성공·관계·윤리 등 일터에서 적용하기 좋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FWIA 버킷 자료를 활용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아버지의 아버지 됨을 돋는 사역입니다.

4. 시부모·장인장모학교(10월 개강)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삶과 죽음을 폭넓게 이해하여 오늘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3)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 형제 관계가 온전케 되어 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이웃사랑, 베풀, 선행, 자비를 실천하는 천국 삶을 지향하여 2021년 교회의 표어대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보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파하여, 상처받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담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현정임 장로
강남교구
상담부장

월경통, 이제는 참지 마세요!



많은 여성이 매달 겪는 아픔으로 월경통이 있습니다. 월경통은 가임기 여성의 약 60%에서 발생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여성들은 그와 관련한 아픔을 겪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생기는 일차성 월경통과 특정한 골반 내 병소에 의한 이차성 월경통이 있어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곤 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은 보통 초경으로부터 1~2년 이내에 발병하며, 통증은 월경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수 시간 전에 시작해 2~3일 동안 지속하며, 주로 치골 상부의 경련통으로 나타나고, 요통, 넓적다리부 연관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차성 월경통은 초경으로부터 수 년 후에 발병하며, 통증은 월경 1~2주 전에 시작되어 월경이 끝나고 수일간 지속됩니다. 이차성 월경통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으로는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등이 있습니다.

일차성 월경통은 월경기 동안 자궁내막에서 프

로스타글란딘 부산물의 과도한 분비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 자궁의 과수축, 자궁혈류 감소, 말초신경의 과민성 증가 등이 발생해 통증이 유발되므로, 치료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억제제인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약물이 효과적입니다. 월경 시작 1~3일 전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약한 통증이 시작되거나 월경혈이 보일 때 투약을 시작하고 월경이 있는 며칠 동안 투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6~8시간마다 복용하는 것이 새로운 프로스타글란딘 부산물의 재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사용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약제의 용량과 종류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피임을 원하는 환자는 호르몬 피임제가 효과적입니다. 호르몬 피임제는 배란을 억제함으로써 자궁내막의 프로스타글란딘 농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 월경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자궁 내 피임장치인 미레나도 월경통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면 이차성 월경통에 대한 검사를 시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이나 난소에 병소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차성 월경통의 대표적인 병소는 자궁내막증으로 자궁내막조직이 난소, 복강 내 복막에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전체 여성의 10%, 불임여성의 15~20%, 만성 골반통 환자의 30%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월경 2주 전부터 시작되는 주기성 통증은 주로 하복부에 나타나지만, 허리나 항문 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동반 증상으로는 성교통, 난임, 부정 출혈, 주기성 배변통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물치료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와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자궁내막조직에 강력한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하는 디에노게스트라는 새로운 황체 호르몬 제재가 개발되어 첫 번째 치료 선택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복강경이나 개복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조직이 복강 내 존재하는 자궁내막증과는 달리 자궁내막조직이 자궁근육층으로 침윤해 생기는 것으로, 자궁 자체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자궁수축이 강해지고 자궁내막의 양이 늘어나 과다월경과 심한 월경통을 일으키게 됩니다. 40세 이상이고, 출산력이 많고, 초경이 빠르고, 월경 주기가 짧을수록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치료는 자궁절제술이지만,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생리 때마다 투여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을 함유한 자궁내 피임장치인 미레나를 삽입해 많은 월경통 감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35세 이상의 여성 약 40~50%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경이 빠를수록, 비만이거나 음주를 하는 경우 잘 생기며, 출산력이 있는 경우 20~50%, 채식을 주로 하는 경우 50%의 발생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궁근종의 개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며, 월경과다,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통, 골반 통통 또는 압박, 성교통, 빈뇨,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경통 치료를 위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하며, 미레나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증상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근종절제술이나 자궁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궁선근증이나 자궁근종 치료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을 통해 월경과다 및 월경통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HIFU은 고강도로 집약한 초음파를 초점 한 곳을 정해 집중적으로 쪼여 65~90도의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종양에 단백질 변성을 유도해 비가역적 응고 괴사를 일으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HIFU은 완전히 비침습적으로 시행되어 수술 시 발생하는 흉터가 없고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거의 없고, 입원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데다 회복 기간이 짧고 장점이 있어 시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경통 이제는 참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 평안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만남**



김종석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의료선교부, 산부인과 전문의

“누나 때문이야. 책임져!”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공식 종교는 불교였다. 부모님께서는 대학생이 되면 종교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잠언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던 나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국민학교 5학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와 영락교회 대학부에 등록했다. 소망하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좋았지만 믿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감격으로 온 세상을 얻은 듯이 뿌듯했다.

우리 집은 일 년에 제사를 무려 13번(!) 지냈으며, 어머니는 매일 밤 부엌 조리대 위에 물을 떠놓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며 열심히 불공을 드리셨다. 그러다가 내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자 불공과 기도의 결합(?)이 시작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시다 제일 끝에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셨다.

우리 가족 모두 완전 코미디라고 웃었지만, 일본



2017년 4월 막내동생 남윤재 목사의 목사 안수식에서(왼쪽이 필자).

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믿는 예수님께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나름 진지하셨다.

가족들은 가끔 “네가 기도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라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늘 깅낑거리면서도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별종 취급을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부 선배, 동기들과 함께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수련회의 주제였다. 그런데 그날 밤 혼자 울며 기도하던 우리 조 친구 중 한 명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부러운 마음에 각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떼쓰듯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 바람처럼 성령이 휘감고 있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내 안의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아버지! 저도 하고 싶어요!!” 밤새 뜨겁게 기도했지만, 방언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 리더인 선배님에게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선배는 방언 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주시는 분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때에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떼를 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 계단 한 계단 감사하며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방언을 받은 친구의 경우는 영락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온 친구였는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고 있었다. ‘그랬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을까?’ 친구에게 방언을 선물로 주신 궁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자리에 불러 주셨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처음으로 우리 집안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 중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다. 믿음이 연약한 나는 때때로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정 믿음의 첫 열매인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소천하신 아버님과 언니, 몇 년 전부터 매일 전화로 나와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는 40여 년 전 “나무아미타불…아멘” 하시던 어머니, 타지에서 믿음 생활하는 큰 동생, 그리고 변호사를 하다가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은 막내 동생.

40여 년이 지난 현재, 나는 영락교회와 더불어 막내 동생이 3년 전 개척한 작은 교회도 딸의 가정과 함께 섬기고 있다.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네자 “누나 때문 이야. 책임져!”라고 귀에 속삭이며 웃던 일이 생각난다.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만남**



남윤자 집사
강남교구
기독출판 바인일구 대표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전차를 타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신분증 모두를 스리(소매치기) 당했다. 큰일 났다. 당시는 6·25 사변 때라 신분증이 없으면 밖에 다닐 수 없었다. 길에서 수시로 경찰관들의 심문을 받을 때다. 신앙이 돈독한 외할머니한테 내 가방에서 소매치기한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내 사무실 2층까지 갖다주게 해달라는 기도를 폐쓰듯 부탁했다.

그때 할머니께서 그런 기도는 어렵다고 하시면서 주머니 안에서 쌈짓돈을 꺼내주셨다. 동회(주민센터)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라는 것이었다. 지극히 합리적인 말씀이시다. 이틀이 지났다. 웬 낯선 남자가 2층 내 사무실로 올라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남자 대답이 “뭐 분실한 것 없습니까?” “어마나, 내… 내… 신… 신분증” 말을 더듬었다. “전차 안에 떨어져 있길래 주웠습니다.”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소매치기 마음을 감동하게 해 2층 내 사무실까지 가져다주면 하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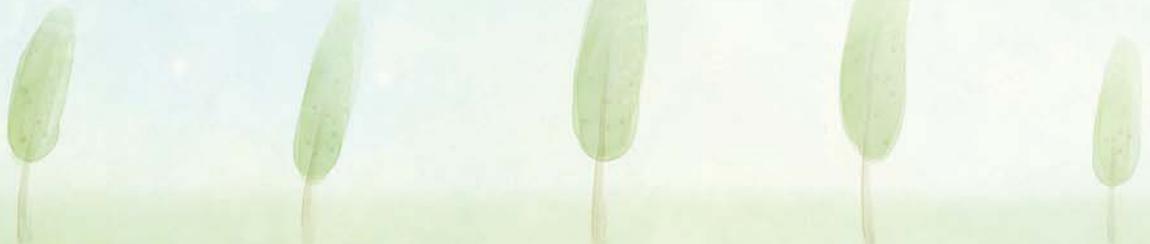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겠다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경망한 내가 아니었나. “주님 감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거듭나는 영적인 입문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네 아이 엄마로 전셋집을 구해야 했다. 그 당시 전화기 한 대가 총재산이었다. 그것을 판 돈 90만 원을 가지고 서대문 교남동 2층 양옥집을 계약했다. 잔금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덮어놓고 기도만 했다. 무모하다 할 만큼 막무가내였다. 연년생 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신앙 안에서 교육하리라는 일념에, 집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만 보고 계약했다. 그때 마음에 두었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용기를 주신다.

잔금 치를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아무 대책도



없이 주일을 맞았다. 3부 예배 드리려고 본당 좌측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앞줄에 노부인이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예쁜 목도리를 두르고 앉아있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저런 목도리를 하나 사드려야지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 노부인이 뒤를 돌아다본다. 악 소리를 지를 뻔 했다. 10년 전 내 돈, 집 한 채 값을 가지고 도망간 사기꾼이다. 그가 예배 도중에 나가기에 나도 뒤따랐다. 구두를 벗고 맨발로 뒤쫓았다. 예배 도중에 무슨 짓이냐고 안내 맡은 고 신린관 장로님이 호통을 치셨다. 변명하려는 와중에 사기꾼 노부인을 놓칠 것만 같다. 잽싸게 치맛자락을 붙잡았더니 가방에서 거금의 수표 한장을 꺼내준다. 약속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4남매를 유년주일학교서부터 착실히 신앙 안에서 교육할 수 있게 터를 닦아주셨다. 4남매가 성장해서 큰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온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다가 중년에 고인이 됐다.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철저한 크리스천이 되라고 이름까지 聖徹(성철)이라고 지어줬는데! 둘째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셨다는

聖勳(성훈)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10년을 목회하다가 귀국해서 부산에서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셋째 아들은 거룩하게 세움을 입었다는 뜻으로 聖建(성건)이라고 이름 지었다. 연세대 ROTC회장을 거쳐 현재 안수집사로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다. 막내는 딸이다. 김활란 박사를 맏은 교육자가 되라고 惠蘭(혜란)이라는 이름을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밖에 없다. 남편 (고)정득만 장로는 본래 불신양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 때문에 교제 당시 부모님의 강한 반대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행히 전란 중에 포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백마고지에서 (고)이경준 목사님(군종목사)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다. 우리 교회 장로로 피택 받고 50주년기념사업 회장직을 맡아 8년 동안 50주년기념관을 짓느라 고 전 해병대사령관 김윤근장로와 전 해병대지휘관 이재규 장로 등 영락교회 보배로운 장로님들과 많은 수고를 같이했다. 50주년기념사업을 마친 다음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나는 망할 뻔했다는 고백을 남기고 갔다. 나는 행복한 여자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만남**



김옥희 은퇴권사
강서·구로·양천교구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는 이탈리아 찬송(Italian Hymn)으로 영국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인 지아르디니(Felice di Giardini, 1716~1796)가 작곡했다. 지아르디니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밀라노에서 소년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젊어서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다. 그 후 영국 런던으로 가서 작곡과 연주 활동을 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의 작품은 1개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룻(Ruth)’ 그리고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가 전부이다. ‘삼위일체 찬송(An Hymn to the Trinity)’이란 곡명으로도 알려진 이 곡은 마틴 마단이 만든 ‘시와 찬미곡조의 찬송가’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탈리아 찬송’이란 이름이 붙었다.

작사자는 미상이나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 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차임에서 울려 나오는 이 곡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송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 즉 ‘Worth’에 ‘ship’을 더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예배를 본다’라

전능왕 오셔서

10

(은 34)
Collection of Hymns for
Social Worship, 1757, alt.
조금 빠르게 108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제 418)

ITALIAN HYMN: 6,8,4,6,8,4
F. de Giardini, 1769

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예배 봐야지”라는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본다’라는 표현은 방관자의 의미로 해석되어, 최근에는 ‘예배 드린다’, 혹은 ‘예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예배 참여로 이야기한다.

성도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찬송을 올려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현금을 드린다. 이런 드림의 정신은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

는 것에 기인한다(민6:14~15). 신약시대에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서와 같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 ‘예배한다’의 의미는 요한복음 4장 23~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와 같이 예배의 주체가 회중이며 예배의 방법 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예배의 참된 모범은 초대교회라고 생각된다.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사도행전 2:42)’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사도행전 2:46~47)’ 말씀에서 (현대예배의 구체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모범적인 예배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한 찬송, 찬양, 기도, 봉헌이며 받는 것은 말씀과 성찬, 축도이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받는 것이다. 이것들을 조합하면 ‘예배한다’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찬송가 중 개회찬송은 우리찬송가 1장부터 77장까지이다. 그 이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림·탄생·생애·수난·부활·재림·성령강림까지 나누어진다. 예배 중에는 개회찬송(1~77장)을 부른 후, 참회의 기도와 교독문 그리고 대표기도 후에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두 번째로 부른다. 세 번째 찬송으로는 말씀 선포에서 오는 응답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봉헌과 성도의 교제 후 파송의 찬송으로 구별해서 찬송을 드리고 있다.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찬송 속에 감사와 결단이 언제나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나가는 것이다.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찬양대 지휘자가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연주한다. 이 차임을 들을 때 우리는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는데, 가끔 차임의 오류로 한 음이 안 나는 경우가 있다. ‘솔미도 레도x도...’ 등의 경우이다. 이때 타들여 가는 지휘자의 심정,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주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마 회중도 같은 것이다. 혹시라도, 기계는 온전한데 내가 차임을 틀리게 친다면 나는 오늘부로 해고당한다는 마음으로 26년간 차임을 연주해 오고 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안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프로젝트 솔저: 한국전쟁 용사들을 찾아



3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롯데월드 에비뉴엘 아트홀에서는 라미 현(RAM Hyun)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예술아카데미대학교(AAU)에서 사진을 전공한 라미작가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들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넘어선 그들의 신념과 자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 미국, 터키, 에티오피아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프레임에 담아낸 그를 서면 인터뷰했습니다.

취재 유혜정 편집위원 사진제공 라미 현

이 프로젝트는 어떤 계기에서 시작했나요?

2016년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전시회에서 사진을 관람하던 한 노병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분께 다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신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나는 미국 해병대 한국전 참

전용사 살 살라토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참전용사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해 오면서도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육군 윌리엄 웨버 대령 집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국내 행사를 찾은 참전용사를 찍기도 했다.

내가 그의 눈에서 봤던 자부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눈빛을 사진으로 더 담고 싶었고, 그들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어 전 세계의 참전용사를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참전용사 초청사업을 하는 곳에 연락했더니 “참전용사 사진을 어디 갖다 팔아먹을 건가요?” “당신이 뭔데 참전용사 사진을 찍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마침내 한국에 찾아온 13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사진을 찍을 기회를 만나서 카메라 뷰파인더로 그들의 강렬한 눈빛과 자부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첫 번째 프로젝트의 현장은 어떠했는지요?

AAU 학교 스승인 데이비드 와서먼(Wasserman)의 “사진은 무언가를 찍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진은 현시대의 것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중요한 도

구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한 영국대사관 무관부에서 참전용사 앤런 가이(Guy)를 소개받고 그를 만나러 영국으로 갔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떠올라 싫어하진 않을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걱정했는데, “우리 집 찾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어서 들어와요!” 하며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30분을 약속한 촬영시간이 4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분이 겪은 생생한 전쟁 이야기는 교과서로 배운 한국전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잊어버린 시간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찍어 주었나요?

국군 및 13개국 참전용사 1,40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40여 차례 찾아갔고 다른 나라 참전용사들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촬영했습니다. 2023년까지 참전 및 지원국 22개국을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SNS를 통한 지인 및 참전용사 가족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참전용사를 찾았으나 지금은 참전협회, 관계기관, 참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베레이 백걸레

용사 가족분들이 방송과 기사를 보시고 촬영 요청을 많이 해 주십니다.

참전용사를 만날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스튜디오의 하얀 배경 속으로 참전용사가 들어올 때,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 회사의 사장,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오로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그 자리에 섭니다.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그분들을 보면 그들의 눈동자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줘요!”

비용이 많이 들텐데요

언제나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나타나거나, 제 사진을 사주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장비를 팔아 여비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버지니아 워터브랜치에서 15명의 참전용사를 촬영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 빛을 내서 간신히 다녀왔는데, 액자 비용까지 감

당하기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Project Soldier(프로젝트 솔져)를 처음 시작하게 했던 육군 1사단 성우경 원사가 생각납니다. 28년 군 생활은 국가에 대해서 부끄럼이 없으나, 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부대 일이 먼저였던 그분의 소원은 30년 만기 전역해서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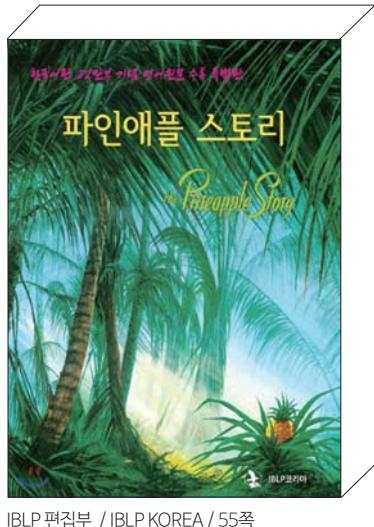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은?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까지 참전 및 지원 22개국에 모두 찾아가서 그분들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주한 미군으로 작업을 확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 쓸저 전시 및 교육 사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만날](#)



미국의 한 참전용사 댁을 방문한 라미현 씨(오른쪽).

「파인애플 스토리」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동화책처럼 재미있게 다루고 있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 전반을 책임지고 이끄는 분이 누구시냐는 질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파인애플 스토리’는 가벼워 보지이만, 절대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는 일념으로 밭을 가꾸지만, 현지 주민들의 수탈로 인해 번번이 실패합니다.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자신의 소명으로 돌아보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과거 선교사로 소명받았을 때의 신앙고백인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

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주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파인애플은 하나님 안에서 현지인과 선교사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현지인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



남정열 목사
종로·성북교구
IT미디어부, 홍보출판부

다윗을 연단시킨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광야와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며
 <말씀대로 365>를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오랜기간 도망 다니던 이스라엘 남부 광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이스라엘 광야를 누비며 성장했습니다. 장성해서는 사울왕의 팝박으로 오랜 기간 도망다녀야 했고, 이때도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며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다윗성에 주로 거주했지만, 이 장소 역시 광야 위에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시편은 전체 150편 중 절반 이상인 74편이 다윗이 지었거나 다윗과 관련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을 읽을 때는 그의 인생 전체 배경이 된 광야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의 시편들과 이스라엘 광야 현장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온 건조한 뜨거운 광야를 처음 방문해보면 마치 사막처럼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과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사람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푸른 초장과 헐만한 물가(물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광야 깊이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광야를 멀리서만 바라본다면 이런 장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광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푸른 초장’과 ‘歇만한 물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는 이같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뜨거운 광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오히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공동체와 함께 아둘람굴에 머물 기도 하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한 깊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해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 다윗의 시편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피난처 아둘람 굴 통로



아둘람 굴 내부 주거 공간 및 식용 비둘기 사육장



깊은 광야 속 - 쉴 만한 물가



광야 안 물샘 곁에서 자란 나무

에
스
더

율
기

시
편

시편 57편 :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1.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
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
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지라 셀라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동’, ‘음악가’, ‘시인’, ‘군인’, ‘정치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수식어가 함께합니다. 이 같은 다윗의 탁월함의 배경과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작된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현장들과 그의 시편들을 살펴보며, 영락교회 모든 가족이 〈말씀대로 365〉를 잘 활용하셔서 더욱 생생하게 성경을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래 다윗의 고백이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골짜기의 백합화 – 정결의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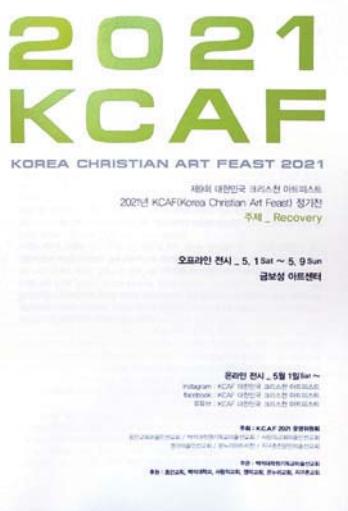
〈정결의 샘〉(스가랴 13:1)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단으로 된 작품에서 1단은 높고 높으신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삶을 묘사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고통받으시던 장면은 2단에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았지요. 찔러보니 솟아오르는 것은 물과 피였지요. 찢기신 주님을 표현했습니다. 3단은 흰 백합같이 정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붉은 피로 물드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의 예언대로 정결케 되는 샘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붉은 피가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이 씻어 희게 만드시는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감사,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만남**



서동희 은퇴권사_성동·광진교구, 건국대 명예교수

2021 크리스천 아트피스트…‘회복’ 주제로 열려



문화선교의 비전을 같이하는 기독미술인선교회들이 모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2021)’가 지난 5월 1일(토)부터 9일(주일)까지 종로구 평창동 금보성아트센터에서 ‘회복(Recovery)’을 주제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행사는 교육·문화·예술 등의 영역에서 기독 미술인들이 하나 되며, 기독 미술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미술의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영락미술인선교회를 비롯해 사랑의교회 미술인선교회, 온누리교회 아트비전 등 9개 미술인선교회에서 활동하는 120여 명의 크리스천 미술인들이 참여했으며 8일에는 작가 워크숍도 열려 기독 미술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도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인선교회가 전시주관을 맡았으며 내년 개최 예정인 10회 행사에는 영락미술인선교회가 맡을 예정이다.

제공 영락미술인선교회

교회 소식

news letter

“브라보! 영락쌤!” 교육주일 온라인 교사 위로행사

교육부(부장 정천우 장로)는 지난 5월 16일 교육주일을 맞아 교육부 산하 각급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응원하기 위한 교사 위로행사 ‘브라보! 영락쌤’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처럼 많은 교사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영락 성도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의 섬김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김운성 위임목사는 영락의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오늘도 작은 한 영훈을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섬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감사 카드와 선물을 온라인을 통해 전달했다.

교육주일을 맞아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교육주일 특별예배로 드렸다. 교육전담 백성우 목사가 역대하 10:6~14



절을 본문으로 ‘응답하라 2021’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10/20/30/40년 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근속교사 62명에 대한 시상을 함께 진행됐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김운성 위임목사 주일설교 방송



▶ TV(직전 주일 예배 방영)

CTS기독교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3시

CGN TV 수요일 오전 5시 20분

금요일 오전 1시, 토요일 오전 9시

▶ 라디오

기독교방송(CBS 표준FM) <영락의 강단> 주일 오전 7시
서울 표준 FM 98.1MHz / www.cbs.co.kr

극동방송(서울) 오늘의 양식 주일 오전 6시30분
서울 표준 FM 106.9MHz / www.febc.net

* 스마트폰에서는 앱스토어(아이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애플리케이션(CBS레인보우, 극동방송라디오)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영광을 위한 첫걸음’ 2021 영락청년 44차 선교비전

2021 영락청년 선교비전이 5월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3일간 ‘고난의 시간, 영광을 위한 첫걸음(로마서 8:17)’을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선교비전에서는 서울드림교회 신도배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했다.

21일 저녁 8시 특별금요기도회(마태복음 6:31~33, 하나님 중심의 삶은 복된 삶인가?), 22일 저녁 7시 찬양집회(창세기 1:26~28,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23일

오후 5시 주일찬양예배(사무엘상 17:45~47,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이어지는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 신도배 목사는 “현재 대다수 청년의 삶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청년세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창조 질서의 회복, 다윗으로 살아가며 주의 앞에 서서 영적 부흥의 선교적 사명을 결단하길 바란다”라고 청년들을 권면했다. 한편 23일 오전



에는 베다니광장에서 청년선교 사역 현황을 알리는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선교사님께 보내는 쪽지 편지’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선교비전 기간에 봉헌된 목적현금은 청년회가 파송한 7개국(러시아·인도·네팔·태국·몽골·우즈벡·터키) 총 11명의 선교사를 위한 후원금으로 쓰인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제공 청년부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



영락사회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진행하는 ‘2021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이 지난 4월 25일(주일) 열렸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재개된 ‘어깨동무 캠페인’은 예전의 대면 행사 대신 복지재단을 소개하는 특별영상 상

영과 복지재단 혁신예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일예배 광고 시간을 통해 상영된 특별영상을 통해 복지재단의 현황과 비전, 주요 사업들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단 사무국에는 성도들의 후원 관련 문의가 이어졌고, ‘어깨동무 캠페인’이 진행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후원금액이 평년대비 1,000여만 원 증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찬양예배는 영락사회복지재단 혁신예배로 열렸다. 사진은 2017 어깨동무 캠페인 모습.

후원문의 ☎ 02)2265-7023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선교의 방향’ 교회연합 의료선교세미나

의료선교부(부장 김경오 장로)가 주최하는 제5차 교회연합 의료선교세미나가 지난 5월 22일(토) 오후 4시부터 zoom을 통한 온라인 세미나로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의료선교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프리카 M국에서 의료선교사로 사역 중인 박세업 선교사(글로벌케어 본부장)가 주제강연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선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와 정동제일교회 의료선교위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의료선교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I국에서 사역 중인 J선교사와 M국의 H선교사가 선교지 리포트를 통해 생생한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여한 각 교회 대표들이 향후 의료선교 사역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한 후, 의사이자 목회자로서 서울 사랑빛교회를 시무 중인 한규승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제공 박도준 안수집사(의료선교부 차장)

‘그리스도인의 이웃 섬김과 사랑’ 사회봉사·자원봉사 온라인 특강



그리스도인의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온라인 특강이 지난 5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사회봉사부(부장 이홍노 장로) 주관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80여 분간 열렸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웃 섬김과 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는 이만식 교수(장신대 사회복지학, 사진)가 강사로 나서 강연을 펼쳤다. 사회봉사부와 자원봉

사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특강은 코로나 19로 인해 봉사와 섬김의 활동이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잊혀 가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이 교수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교회를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듦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사회봉사가 갖는 역할’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기독교적 사회봉사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우동정



이정호 은퇴장로

이정호 은퇴장로가 사무총장
을 맡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슈페리어 재단(이사장 김귀열 장로)이 시상하는 제8
회 슈페리어 대상(선교부문)을 받았다. 지난 1991년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재소자와 출소자들의 복음 전도와 사회정착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5월 17일(월) 강남구
테헤란로 슈페리어타워에서 열렸다.



박신화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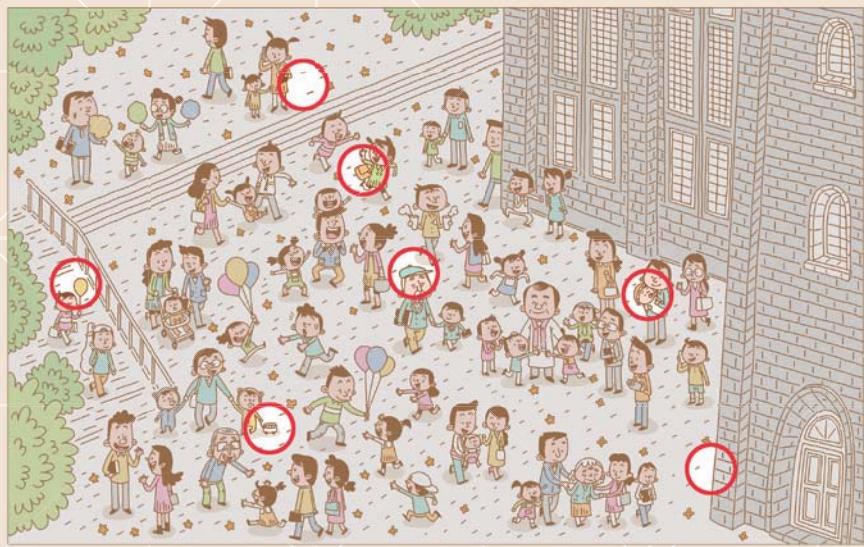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박신화
장로가 최근 모교인 미국 콜로
라도음대가 수여하는 '2021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받
았다. 현재 이화여대 음대 교수, 한국교회음악협회 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 장로는 100여 장의 합창 음반
출판, 천여 차례의 합창 공연 등을 통해 합창음악과 교
회음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국합창협회 전국 콘퍼
런스를 통해 열렸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다른 그림 찾기

※ 바로 잡습니다

지난 호 55쪽 다른 그림 찾기
'다른 부분 6곳'은
'7곳'으로 정정합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같은 그림 찾기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락의 가정들 되세요.

다섯 개 그림 중 같은 그림 2개를 찾아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6월 목회력

4일(금)	연합권찰공부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3일(주일)	제직회
16일(주일)~20일(주일)	북한선교대회
20일(주일)	북한선교주일
25일(금)	심방준비회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종강
27일(주일)	교사부흥회, 사회봉사주일
28일(월)~7월 3일(토)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6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6월호는 북한인권 문제와 기독교인의 역할, 6·25 나라사랑, 북한선교 등을 주로 다루었고, 특별히 젊은 세대의 소리를 듣는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편집위원들이 여러 절차를 거치는 작업을 어렵게 진행하였습니다. 편집 및 교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출판부장 양지청

2021년 6월호 통권 568호

발 행 2021. 6.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김기선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차영수

청년위원 김효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윤
우대권 이현지 하예훈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
아이폰용

2021 북한선교대회

복음통일! 주의소원, 나의사명

동행 12,000km

6월

북한선교대회
주요일정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2,9,16일(수)	수요1,2부	북한동포사랑기도회 및 간증	베다니홀
6일(주일)	1-5부	동행 12,000km 기도카드 및 홍보영상	본당 및 부속실
18일(금)	오후3시	영락포럼(이호 목사) /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1-5부	북한선교주일 예배 및 홍보영상	본당 및 부속실
20일(주일)	오후5시	북한선교주일 찬양예배(강신원 목사)	본당
	종일	광장행사 / 동행 12,000km 전시	베다니광장

영락화랑

골짜기의 백합화 -정결의 샘



서동희, 도기, h 55cm, 2020년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1)